신임 박물관교육학회장에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박물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차기회장에 한선학 원주 고판화박물관장<사진>이 선출됐다.

한국박물관교육학회는 12월 7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회 정기총회 겸 학술세미나를 열어 한선학 관장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선학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시작한다. 한선학 제9대 회장은 국내 최초로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물관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 년간 동아시아 고판화 유물을 수집해 2003년 고판화박물관을 설립했다. 이후 박물관교육을 통해 박물관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인사 BBS불교방송

△류재호 법무감사팀장 △김형준 광고사업국 마케팅부장 △전영신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신두식 보도국 경제산업부장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 겸 보도제작부장 △박광열 라디오제작국 라디오편성부장 △한지윤 라디오제작국 라디오제작부장 △한희권 TV제작국 TV편성부장 △김현성 TV제작국 TV제작부장 △권윤정 광고사업국 기획사업팀장 △박민희 전법후원국 전법팀장 △안해성 전법후원국 후원팀장 △박현수 전법후원국 후원상담팀장 이상 12월 12일자



군산사암聯 자비의 연탄 나눔

저소득 이웃에 연탄 5,000장 전달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가 연탄으로 겨울난방을 해결하는 홀몸어르신과 저소득계층을 위해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를 열었다. 연합회 스님과 군산자원봉사연합회 불자들은 12월 8일 군산시 선양동 일대서 저소득층 17가구에 자비의 연탄 5,000장과 라면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에는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수도암 주지 무진 스님, 보천사 주지 의종 스님, 성흥사 주지 보위 스님, 군산 공군부대 호국 군성사 혜준 법사를 비롯해 공군부대 호국 군성사 불자장병, 군산불교자원봉사자 불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도연 스님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추위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연탄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은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부처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서 벽지 의료봉사로 부처님 수행정신 전파"

Interview

'진료 4만 명 돌파' 반갑다연우야 황채운 단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6년 주부신도 주축 발족
각 불자의료봉사단 · 기업 동참
진료인원만 4만 153명 달해
어촌 이어 농촌 등 봉사 확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의료봉사를 위해 발족한 봉사단 '반갑다연우야'가 12월 5일 진료인원 4만 명 돌파 기념 축하자리를 AW컨벤션센터서 마련했다. '반갑다연우야'는 2006년 4월 13일 발족한 후 불교계 복지관과 이주노동자 시설, 농어촌 등에서 무료진료 봉사를 진행해왔다. 중앙신도회가 추진하는 '불교의 사회화 운동' 일환으로 종합검진버스 1대와 치과진료버스 1대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해 호평을 받아왔다. 출범 첫해 김천 청암사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외 진료횟수 306회, 진료인원 4만153명이다.

창단 때부터 봉사단을 맡아 봉사를 이어온 황채운 단장은 "그동안 300여 명의 정기후원자를 비롯해 각계의 봉사 참여 덕분에 반갑다연우야가 활동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반갑다연우야라는 자비의 나무가 300회를 넘어 500회, 1000회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봉은사 신도로 봉은사 주부 봉사자들과 함께 반갑다연우야를 시작했다. 동국대 의료원 연우회 등이 가세하며 점점 봉사조직을 키웠다. 한의사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 등 불자 의료봉사단도 동참했다.

황 단장은 "의사가 아닌 일반신도여서 의료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도움이 있었다. 하지만 중앙신도회에서 각 의료봉사단과의 연계를 신경써줘 봉사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반갑다연우야는 매주 셋째 주 일요일 한의사불자연합회와 한방의료봉사를, 월 1회 수협과 어촌마을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단장은 "양 · 한방 의료봉사에서 최근 한방의료봉사만 진행해 아쉬움이 있다. 어촌마을 의료봉사와 함께 농촌과 도서 벽지에서 양 · 한방 의료봉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단장은 "부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 의왕으로 아픈 이들을 보살피는 봉사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통해 불교의료봉사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신도회는 황채운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을 비롯해 한의사불자연합회 역대회장,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와 후원기업, 이주민법당 주지, 지도법사스님 등 총 43명에게 공로 · 감사패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반갑다연우야 지도법사 연곡사 주지 원묵 스님과 법상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16명이 감사패를, 봉사단장을 포함한 봉사단원과 한의사불자연하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원 등 27명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불사 회향, 동국대 장학금으로"

법륜사 주지 경봉 스님, 동국대에 1억원



용인 수지 법륜사 주지 경봉 스님은 12월 10일 법륜사에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에게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경봉 스님은 "법륜사 40년 불사를 회향하며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호 스님은 "스님께서 희사하신 기부금은 '금장 장학'이라는 장학기금으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김장으로 전한 훈훈한 마음

범어사, 배추 4000포기 담가 복지시설 전달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5일 공양간 앞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겨울 사부대중이 모여 김장 행사를 진행하고 이웃에게 회향하고 있다. 올해는 김장 4000포기 총 500박스를 사회복지법인 범어에 전달했다. 범어는 소속 복지기관에 김장을 나눠 소외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지역복지 살리는 자비의 김장

전주불교연합회 김장 행사로
불교복지시설에 2,000㎏ 전달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이 행사로 마련된 김장을 생명평화밥상 이승한 국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전주불교연합회가 불교계 지역 복지기관을 위해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는 12월 9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통해 2,000㎏의 김장을 담가 불교계 복지기관과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불교연합회 소속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전북불교네트워크 오종근 공동대표, 안준아 전북불교룸비니산악회장, 유지원 자연음식문화원장, 전북불교대학 최을순 합창단장을 비롯해 금선암, 전북불교룸비산악회, 전북불교대학, 전북불교네트워크, 대불련전북지부, 대불련총동문회 전북지부, 자비공덕회 회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금선암 등 지역사찰과 회원단체, 시민들이 십시일반 후원으로 마련된 자비의 김장김치는 송광 정심원, 금산백련마을, 전주서원노인복지센터, 전북생명평화밥상, 전주아동센터 등에 전달됐다.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전주불교연합회는 창립취지에 맞춰 지역불교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원들의 힘을 합쳐 정진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단체와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김장 나눔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명평화밥상 이승한 국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년 김장김치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성껏 담은 김치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자 건강 돕는 곰탕 기부

㈜국제식품, 1000만원 상당 미소원에 기탁



㈜국제식품(회장 정창교)은 12월 5일 1000만원 상당 곰탕을 사단법인 미소원에 전달했다. 국제식품이 후원한 곰탕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전달되며, 특히 국립마산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보양식으로 회향된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국제식품 후원 덕에 결핵환자들에게 건강식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